

학문적 독창성 담긴 한국의 음악이론과 역사

이혜구 지음 《한국음악논고》

송방송

영남대 교수·한국음악사학

광복 50주년 즈음하여 또하나의 연구업적이 음악학계에 출간됐다. 《한국음악연구》(1957)·《한국음악서설》(1967)·《한국음악논총》(1976)·《한국음악논집》(1985)에 이은 만당 이혜구(1909년생)의 다섯번째 논문집 《한국음악논고(韓國音樂論攷)》가 그것이다.

서문에서 밝혔듯이 21편의 논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대강(大綱)·장단·선율·형식 등의 이론에 관한 논문들이고, 둘째는 고구려·고려·조선조의 음악역사에 관한 논문이며, 셋째는 한국음악과 관련된 중국음악 및 일본음악에 관한 논문이다. 넷째로 한국전통음악의 아름다움(美)을 다룬 글이 결론적이고, 음악연구생활 회고를 여담으로 꼬리에 달았다.

전통음악의 이론

전통음악의 이론과 관련된 여덟편의 논문 가운데는 홍정수 박사의 대강보(大綱譜)에 대한 논문을 비판한 글, 전통음악 중에서 느린 음악의 대표적인 실례인 상영산(上靈山)과 이수대엽(二數大葉)의 리듬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론한 글, 《삼죽금보(三竹琴譜)》에 전하는 중대엽(中大葉) 음표의 시가(時價)에 대한 저자의 해석을 제시한 논문이 있다.

그리고, 장단(長短)의 개념에 대하여 문헌 및 현행 음악을 근거로 거론하고 여창가곡 중 이수대엽의 선율을 분석한 논문과 한국전통음악의 형식문제를 다룬 논문, 민요와 판소리 중 서정가요 곧 소가곡(小歌曲)의 형식에 대하여 노래가사를 중심으로 거론한 글, 치화평(致和平)과 진작(眞勻)의 상관관계를 고악보 중심으로 분석한 글, 그리고 한국음악사학과 한국민족음악학의 연구방법과 과제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 글이 포함된다.

음악사적 관점에서 논의된 <고구려음악과 백제음악의 국제성>은 중국문헌과 일본 문헌에 나타난 음악기사를 중심으로 거론했고, 《한국사상사대계》 권3에 실렸던 <고려시대의 음악문화와 사상>은 고려시대의 사상, 곧 불교·유교·선풍(仙風)과 관련된 음악문화에 대한 문헌적 연구이며, 현행 관계 타령과 《고려사》악지의 장악(長巖)을 비교

이 책은 한국 전통음악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학문적

열정의 결정체이다.

9순을 바라보는 노령임에도

실증적인 사례를 통한

엄격한 논리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돋보인다.

범아시아적 시각의 필요성,

고악보 연구의 새 방법론 등의

연구과제도 일깨우고 있다.

고찰한 <고려사 악지의 장암과 장끼타령>도 수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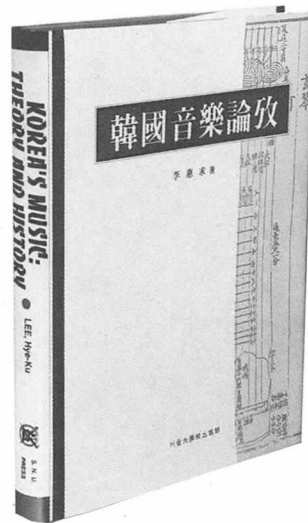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실은 마지막 2편의 글에서는 저자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악곡의 실례에 의거하여 논의하고, 1930년대부터 한국음악을 연구하게 된 동기 및 그동안 출간된 논문집에 포함된 중요한 논문의 배경, 즉 '만당음악학' 반세기에 대한 저자의 회고를 담았다.

학문적 열정의 결정체

이 논문집의 내용은 한마디로 한국전통음악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학문적 열정의 결정체이자 만당음악학의 정수를 유감없이 보여준 연구성과라 할 수 있다. 만당음악학의 정수가 독창성의 관점에서 한국음악학의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언급해야 할 사항은 9순을 바라보는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학문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저자의 학문적 진지함과 학자적 삶의 성실성이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만당음악학의 학문적 권위와 연구업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자신의 잘못된 견해를 수정하고 새로운 견해를 계속 발표한 결과가 바로 이 논문집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일본학자의 잘못된 견해에 대한 학술적 비판의 대목은 이 책의 백미 중 하나로 꼽힌다. 139쪽과 140쪽에서 기시베 시게오



(岸邊成雄)교수의 《唐代音樂의 역사적 연구》에서 언급된 내용에 관한 학문적 점검이 그 실례다. <催馬樂의 五拍子>(281-335쪽) 및 <催馬樂(사이바라)의 原曲>(336-347쪽)에서 일본 고대가요의 하나인 사이바라에 대한 여러 일본음악학자와 Elizabeth J. Markham의 연구업적에 대한 비판적 검토작업도 뛰어난 연구성과다.

다음으로 한국음악사학의 핵심 사료의 하나인 고악보에 대한 만당음악학의 연구방법론은 음악사학의 전범(典範)으로 꼽을 만하다. 《한국음악학자료총서》에 영인본으로 출간된 고악보 중에서 연대가 명기된 16종의 고악보에 의거하여 연대미상의 고악보 24종을 세 무리로 나누어 살핀 연대고증의 방법론은 저자 연구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꼽혀야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옛악곡의 소멸, 같은 악곡의 변천과정, 기보법의 변천과정, 중지구의 변천의 네가지 준거들에 의거하여 연대미상의 고악보가 대략 언제쯤 편찬됐을 것이라는 연대고증의 실증적 연구방법론이, 지금까지 음악학계에서 거론된 바 없는 음악사학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셋째로 열다섯째 논문에서 한국음악사학 및 한국민속음악학의 연구방법으로 제시된 비교방법론은 나비수집가의 보호색이론과 비유해서 설명됐는데, 보호색이론은 1980년 국제전통음악학회(ICTM) 총회에서 기조논문의 일부로 발표된 바 있다. 그 글의 끝(230쪽)에 제시된 외국음악학술서의 서

평에서 종종 언급되는 학술서나 논문의 필수적인 고려사항들, 예컨대 일관성의 결여, 부족한 학식, 준거들의 엄격한 공식화, 개념적 불분명성, 개념규정이 안된 용어의 사용 등에 대하여 특히 한국음악학의 전공자들은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여 새로운 학문적 접근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명확한 개념규정 시도

넷째로 학술서나 논문에서 음악용어의 개념규정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는 한국음악학계가 극복해야 할 당면문제의 하나로 남아 있다. 그런데 중요한 음악용어에 대한 개념규정의 중요성에 관해서 저자는 정악(正樂) 및 장단(長短)을 실례로 들어서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로 후학의 연구업적을 일일이 검토, 잘못된 점은 원전의 출처를 제시하면서까지 지적한 점은 저자의 학문적 진지함을 보여주는 예이다.

여섯째로 범아시아적 관점에서 탐구한 16-19편제의 네 논문에 대한 학술적인 평가가 제고돼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한국음악학의 연구성과가 결코 우물 안의 개구리격에 머물 수 없음을 그런 연구성과들이 확실하게 대변해주기 때문이다. 사실 21세기 한국음악학의 발전은 앞으로 범아시아적 시각을 가진 후학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무방할 듯싶다. 저자의 범아시아적 연구업적을 높이 평가하려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긍정적 측면에서 조명된 이 논문집의 학술적 공헌에 대한 내용은 요컨대, 저자가 일관되게 지켜온 음악학의 입장이 곧 범아시아적 시각의 필요성, 고악보연구의 새 연구방법론, 보호색이론과 같은 이론학의 중요성과 학술용어의 분명한 개념규정의 강조 등과 같은 사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들은 모두 저자의 학문적 독창성이나 정확성 그리고 논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이는 또한 앞으로 한국음악학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임을 후학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하다. ❖

서울대출판부/B4/384면/18,000원